

#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류 종 렬\*\*

차 례

I. 머리말  
II. 본론

III. 마무리

국문초록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김병익, 천이두 등의 평론가들에 의해 월평과 서평 등에서 한국소설에 있어 문제적 소설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재선에 의해 도시소설의 한 유형으로 문학사에 기술되고, 김윤식에 의해 노인성 문학이란 명칭으로 소설사의 중요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다소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나온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펴낸 『한국 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한국노년문학연구 II』,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한국노년문학연구 IV』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책에 수록된 변정화, 서정자, 유남옥, 조희경, 서순희 등의 논문이 노년 소설을 다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김윤식·김미현이 엮은 『소설, 노년을 말하다』에 수록된 김윤식과 김미현의 평론, 최명숙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오

\* 이 논문은 200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늘의 문예비평』의 ‘한국 문학과 말년(lateness)의 양식’ 특집 중 황국명의 평론, 그리고 전홍남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해 노년소설이 한국소설의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노년소설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소설은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노년의 작가가 생산한 소설이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야기의 중심 영역이 주로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고, 서술의 측면에서 노인을 서술자이나 초점화자로 설정하여 서사화된 소설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세대의 비정함을 통해 노인의 소외된 삶을 다루는 부정적 측면의 소위 ‘노인문제’ 소설과, 노년의 원숙성과 지혜를 보여주거나 존재의 탐구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긍정적 측면의 소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제어 :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산업화 시대의 문학, 노인문제, 노년학

## I. 머리말

한국사회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 돌입하여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을 겪게 된다. 중진국으로의 도약, 100억불 수출, 국민소득 만 불 달성, 새마을 만들기 등의 표어를 앞세운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선도를 따라 진행되었던 급속한 근대화와 함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루어졌다. 농업 중심의 경제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농민 분해와 농민의 노동자화·도시의 빈민화가 야기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었다. 그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사회구성체의 내적 모순이 심화되는 양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1970년대의 문학을 한국 문학사에서는 산업화 시대의 문학이라 이름붙이고 있다.<sup>1)</sup>

이와 더불어 1950년대 이래 세계의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sup>2)</sup>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한국 사회 역시 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더욱이 노인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sup>3)</sup> 여기서 노인문제라 함은 노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의 가족이 생명의 재생산이 불충분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는 상태, 즉 노인과 그의 가족이 건강과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sup>4)</sup> 한국에서도 1970년대의 산업화시대 이후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 노인문제는 사회학, 심리학, 가족학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요즘은 노년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소설 또한 사회 현실 속에서 노인과 그들의 삶의 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들을 노년소설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노년소설의 생성 원인은 김윤식의 지적처럼 한국 근대문학의 연륜과 작가의 연륜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sup>5)</sup> 즉, 한국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작가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또한 한국 근대문학의 연륜이 100년을 넘어서게 되어 문학적 역량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다.

- 
-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1945-2000), 민음사, 2002. 8. 245쪽 및 김윤식·정호웅, 『개정증보판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9. 421쪽.
  - 2) 일반적으로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고 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2001.12)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 구성 비율이 1960년 2.9%,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1999년 6.9%, 2000년 7.2%, 2001년 7.6%, 2008년 10.1%, 2019년 14.4%로 나타나 있다.
  - 3)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평출판사, 1991. 38쪽 참조.
  - 4) 서병숙, 『노인 연구』, 교문사, 1994. 21-22쪽.
  - 5) 김윤식, 「2001년도 중·단편 읽기」, 『2001(제1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문예중앙, 2001. 9. 349-370쪽 참조.

노년소설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이 명칭은 이어령이 『신상』 1970년 가을호 「현대문명과 노인」에서 보리스 바이앙의, 우(牛)시장에서 소처럼 팔려가는 노인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그린 노년소설 「노인 시장」을 예로 들어 현대 문명이 몰고 온 노인들의 몰락한 삶을 설명한 것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sup>8)</sup>

그러나 우리 현대 소설사에서 노년소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형편이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작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소설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한국의 현대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밝혀보고자 씌어졌다. 연구 성과의 검토는 연구자 사이의 입론 방법이나 쟁점 등을 중심으로 행해질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노년소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논의의 전개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노년소설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미진하고, 연구가 진행형이기에 성과의 진행 과정을 시대별로, 연구자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한국 현대 노년소설의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6) 1970년대 이전에도 노인과 그들의 삶을 서사화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나, 이들을 본격적인 노년소설이란 소설 유형으로 다루기는 곤란하다. 노년소설은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의 문제가 서사의 중심 문제가 되어야 하는 산업화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8) 서정자,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0. 229쪽. 및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6쪽. 이 작품에서 노인들은 현대의 종교인 생산성을 잃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또한 인간의 문화를 동물적인 것과 식물적인 것으로 나누어, 과거 서양인들은 동물처럼 추악하게 늙어가고 동양인들은 식물처럼 생의 자세를 완성시키면서 늙어갔는데, 현대 노인들의 몰락한 삶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물적인 삶에서 동물적인 삶으로의 변화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산업화시대 이후 현대사회의 한 소설 유형으로서 노년소설의 개념과 특성도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본론

II-1 :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김병익, 천이두 등의 평론가들에 의해 월평과 서평 등에서 한국소설에 있어 문제적 소설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재선에 의해 도시소설의 한 유형으로 문학사에 기술되고, 김윤식에 의해 노인성 문학이란 명칭으로 소설사의 중요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김병익은 「노년 소설 침묵 끝의 소설- 노년과 중년기 작가의 변모와 기대」이란 월평에서, 박영준의 「반자유지대」와 이봉구의 「죽음의 그림자」를 언급하면서 노년 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작가가 어느 날 문득, 나는 늙었다는 비참한 생각에 빠져있음을 깨달을 때 그의 문학은 어떤 양상을 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젊을 때의 날카로운 감수성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원숙해지고 말년에는 노인의 지혜로 깊어지는 예를, 가령 톨스토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작품을 간단히 해설한다. 월평이라 구체적인 개념 정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노년소설에 대해 ‘노년기에 처한 한 인간의 내밀한 정돈을 훑쳐보는 즐거움’, ‘노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숙한 태도’, ‘인생의 길을 바라보기 시작한 한 인간의 내밀한 분위기’, ‘노인의 소멸의지를 해방시키고 싶은 바람’ 등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죽음 앞에 선 노년의 허망함이センチ멘털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애상적인 신변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9)</sup>

김병익의 해설은 노년소설이란 용어를 한국소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

9) 김병익, 『한국문학』, 한국문학사, 1974. 4. 304-306쪽.

고, 노년소설의 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의를 지닌다.

천이두는 「원숙과 패기」라는 서평에서, 최정희의 『찬란한 대낮』, 황순원의 『탈』을 해설하면서 ‘노년의 문학’, ‘노대가의 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는 춘원 이래 한국 소설 문학에서 ‘소년의 문학’, ‘청년이나 장년의 문학’은 있었지만, ‘노년의 문학’은 없었다고 하면서, 최정희나 황순원의 작품을 노년의 문학이라 하였다. 그는 나이가 노쇠현상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 나이를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어떤 삶의 양식으로 확인하려는 자세에서 연유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노년의 문학은 ‘노년기에 접어든 작가가 생산한 문학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작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수한 분위기의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두드러진 특징을 ‘죽음에의 의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의 죽음의 문제란, ‘자연 현상으로서의 죽음의 의식이 어떤 관념의 너울을 쓰지 않은 구체적인 생활 감정의 형태로 부각’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세계는 한국 소설사에서 새로운 국면이며, 소중한 한 가치의 차원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의 삶의 구체성을 통하여 이룩된 ‘체득의 경지’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문학이라고 하였다.<sup>10)</sup>

천이두의 해설은 짧은 글로서 비록 개념 규정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문학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구체적 삶의 체험으로 체득된 서사화의 방법과 노년소설의 중요한 특성으로 ‘죽음에의 의식’을 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김승옥은 「빛바랜 삶들」이란 월평에서, 김용운의 「손영감의 어느 날」, 정동수의 「떠도는 섬」, 김원우의 「망가진 동체」, 박완서의 「아저씨의 초상」 등 노인문제를 다룬 소설 네 편을 해설하고 있다. 노년의 외로움, 젊은이의 무관심, 가난하고 비참한 노년 등의 노인 문제가 한국 사회에도 꽤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효라는 슬로건으로는 이를 해결

10) 천이두, 『문학과 지성』, 24호, 1976년 여름호, 제7권 제2호, 1976, 5, 509-519쪽.

하지 못하고, 서양식의 사회보장제도나 양로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 노인의 지위가 격하되고, 그렇게 존경받지 않게 된 것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경제권의 박탈 등을 들고 있다.<sup>11)</sup>

김승옥의 해설 역시 짧은 글로서 노년소설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노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재선은 『현대한국소설사』에서 1970년대 이후 한국소설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인 도시소설의 한 양상으로, 노년학적(gerontological) 소설 유형을 들고 있다. 노년학적 소설이란 이재선이 명명한 용어로서, 그는 포괄적으로는 노년의 삶, 즉 삶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협의적으로는 도시소설의 한 종속 장르로서 규정할 경우에는 사회변동기에 있어서 노년의 도시생활 및 도시화와 연계된 삶을 대상으로 묘사하는 소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시를 배경으로 노인을 주요 등장인물로 하는 이런 소설에 있어서는,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의 변증법적인 대립의 상호관계나 변모는 물론, 노인의 병과 함께 세대 간의 단층 내지는 가족 관계의 이접(離接)상태가 일반적으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급격한 붕괴를 표상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도시화 및 도시의 생활환경은 직장사회요, 혈연집단에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사회이며 아울러 생활공간의 구조적인 분리가 현저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결합의 기초가 핵화(核化)또는 원자화(原子化)함으로써 도시형의 소수단위로 재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도시화에 의한 대가족제도로부터의 가족관계의 핵화와 가정환경의 급격한 변용에서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특히

11) 김승옥, 『문학사상』, 1983년 6월호, 245-248쪽.

노인들의 추방과 무력화, 고독감, 집 지키기로서의 위계적인 전략, 그들의 도시형 퍼스낼리티에 대한 위화 및 공간의 소외와 단절 등이다. 즉 늙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세계는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삶의 방법에 의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아들)와 시골(아버지)의 공생관계는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현대 한국의 도시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인들의 무력화, 가출과 병과 자살 및 노인 추방과 유기(遺棄)의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 시골의 경우는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에 의한 노인층의 주요 농촌 노동력화와 젊은이의 공동화 현상 때문에 노인의 소외와 고독이 더욱 심화되고 가중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 작품이 도시 내지 도시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비뚤어짐의 증후의 상태를 경각시키면서 인간다움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노년학적 소설에 속한 작품으로, 이문구의 『우리 동네』연작, 오영수의 「화산대」, 최인호의 「들의 초상」, 최일남의 「흐르는 북」, 전상국의 「고려장」, 김원일의 「미망」, 서정인의 「굴」, 이청준의 「눈길」, 박용운의 「고가」와 「고려장」, 박완서의 「울음소리」, 오정희의 「동경」과 「적료」, 이동하의 「땀」, 안장환의 「서울타령」, 임철우의 「어머니의 땅」등을 들고 있다.<sup>12)</sup>

이재선의 논고는 노년학적 소설을 당당히 한국현대소설사에 자리 매김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노년학적 소설을 협의로 사용하여 도시소설의 하위 유형으로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하여 노년소설의 범주가 축소되어 노인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노인성의 문학적 처리 방식 - 박완서·윤정선」이란 월평에서 박완서의 「오동의 숨은 소리여」와 윤정선의 「사랑이 흐르는 소리」를 노인성 문학이라 분류하고, 그 분류 기준을 노인의 연령선과 더불어 각

12)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 3. 288-289쪽.

각 박의 경우 종이 콤플렉스(성스러움)와 모든 것의 자취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윤의 경우는 단순해지기와 사랑의 잔인성(삶의 잔인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노인 문제를 다룬 소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문단이 그만큼 연륜을 쌓았다는 증거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4.19세대(순종 한글세대)에서 우리 문학이 그다운 물줄기를 찾았다고 보았다.<sup>13)</sup>

또한 김윤식은 「2001년도 중·단편 읽기 - 황순원문학상 후보작의 경우」라는 평론에서, 「묘지명(1) - 노인성 문학의 세가지 방식」이란 소제목으로 전성태의 「퇴역 레슬러」, 김원일의 「나는 두려워요」, 박완서의 「그리움을 위하여」등 세 작품을 소재상 노인성 문학의 범주로 분류하여 해설하고 있다. 그는 노인성 문학을 ‘우리 사회도 선진국형 고령사회로 진입한 징후인지, 혹은 우리 작가들의 연륜이 노인성 체험의 경지에 이르렀음인지, 그들의 상승 작용인지 이 점이 궁금하고요.’하면서 ‘상승작용으로 봄이 타당하겠지요. 제 감각으로는 이 형국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직스럽다고나 할까요.’라고 하여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세 작품을 각각 시대적 층위, 사회적 층위, 개인사적 층위의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움을 위하여」를 해설하면서, ‘환갑진갑의 나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노인의 당면 과제란 다른 아닌 ‘그리움의 상실’이라는 사실이 그것. ‘그리움’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늙음의 본질이라는 것. 마음의 메마름이야말로 노인성 문학의 과제라는 것. 굳이 논리화한다면 ‘그리움이야말로 축복이다’는 명제.’ 라고 노인성 문학의 한 특성을 지적하였다.<sup>14)</sup>

김윤식은 우리 근대문학의 연륜과 작가의 연륜이 노인성 문학 생산의 원천이 되었는데, 특히 4·19세대의 작가들에 의해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하였고, 또한 노인성 문학의 특성도 지적하였다. 문학사적 맥락에서 노

13) 김윤식, 『90년대 한국 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4. 353-356쪽.

14) 김윤식, 『2001(제1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문예중앙, 2001. 9. 349-370쪽.

인성 문학의 발생을 설명한 점에서 이 논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한글세대인 4.19세대에 의해 노인성 문학이 생산되었다는 점은 노년소설의 범주를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Ⅱ-2 : 노년 소설에 대한 다소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펴낸 『한국 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한국노년문학연구 II』,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한국노년문학연구 IV』 등을 주목할 만하다.<sup>15)</sup> 이들 책에 수록된 변정화, 서정자, 유남옥, 조희경, 서순희 등의 논문이 노년 소설을 다루고 있다.

변정화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 이선의 <이사>와 <뿌리 내리기>를 대상으로」라는 논문에서, 노인문제는 사회학, 가족학, 심리학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학의 경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노년 소설의 개념 규정과 그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선의 「이사」와 「뿌리 내리기」 두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개념과 그 연령선을 규정하였다.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 설정. 연령은 절대연령, 육체연령, 심리적 연령, 사회적 연령 그리고 문화적 연령, 이 다섯 유형의 연령을 포괄할 개념이다. 때문에 연령선을 설정하는 것은 인위적일 수도 있으나, 사회측정의 기준의 필요에 의하여 역연령(曆年齡)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를 최저 연령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령선

15)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백남문화사, 1996. 10.), 『한국노년문학연구 II』(국학자료원, 1998. 4.), 『한국노년문학연구 III』(푸른사상, 2002. 2.), 『한국노년문학연구 IV』(이회, 2004. 3.)

은 정년과 환갑을 맞는 시기, 노인 상징 중의 하나인 조부모가 되는 시기, 대한노인회가입이 60세부터 가능한 점과 노인복지법(1981) 상의 노인 규정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노년 소설의 세부 요건으로는 이러한 연령선에 있는 노년의 인물이 주요인물로 나타나야 할 것,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골격을 이루고 있을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설정해 볼 수 있고, 그 서사화의 방법을 ‘외부로부터의 묘사’와 ‘내부로부터의 묘사’ 등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노년 소설을, 이재선이나 김윤식처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분리하며, 또한 소설의 주요 서사공간을 도시로 한정하고, 그리고 그 생산주체를 4·19세대 작가들에 국한하여 이를 우리 한글문학의 성숙성과만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도촌(都村)을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삶의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의 ‘문제성’을 간과하는 제한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그는 노년 소설의 개념을, 그 서사공간이나 생산 주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리에 두어, 이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의 극히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보고자 하였다. 예술이란, 문제적 상황의 위기를 재빨리 예감하여 이에 재빨리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 노동자소설이나 지식인소설의 발생 요건이 바로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위협하는, 식민지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였고 이에 대한 작가들의 재빠른 감응이었듯이 말이다.

아울러 그는 노년소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선의 작품들이 이 분류 속에 넣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유형 : 우리 시대의 노인들이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겪은 체험이 오늘의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삶을 유린하는 양상들을 그린 작품들. 과거와 현재의 충돌, 그리고 현재를 억압하는 과거의 역사체험이 서사

를 진행시키고 있다. 중편 「이사」(『동서문학』, 1990. 9월), 중편 「뿌리 내리기」(작품집 『기억의 장례』, 민음사, 1990), 단편 「9월, 흥몽과 길몽」(연작장편집 『행춘아파트』, 민음사, 1991)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 2유형 : 본격적인 노인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우울한 작품들. 소외, 병고, 고립 등의 문제적 상황이 서사진행의 슬픈 원동력이 된다. 단편 「중소리 울리는 저녁식탁」(연작장편집 『행춘아파트』, 민음사, 1990), 단편 「동상이몽」(『문예중앙』, 1992. 여름), 단편 「바람 불어 좋은 날」(『샘이 깊은 물』, 1992. 8월), 중편 「몰락」(『문학사상』, 1994. 11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 3유형 : 노인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법들을 그린, 기분좋은 작품들. 우리는 연륜이 곧 삶의 지혜가 되는 세계를 목격하게 되며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원을 간직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게 된다. 단편 「원장과 촌장」(연작장편집 『행춘아파트』, 민음사, 1990), 중편 「주인노릇」(『여성신문』, 1992. 158호부터 연재), 단편 「사막에서 사는 법」(『현대문학』, 1994. 1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세 유형에서 제 2유형과 제 3유형이 본격적인 노년 소설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제 1유형에 주목한 이유를, 이들 작품이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노인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노년에 대한 탐색의 추를 현상 너머의 깊은 근원에까지 내려, 과거와 오늘을 동시에 포착하여 그것을 통일된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교차시키고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또한 변정화는 「죽은 노인의 사회, 그 징후들」이란 또다른 논문에서 자신의 앞의 논문에서 언급한 제 2유형에 속하는 이선의 「5월, 중소리 울리는 저녁식탁」과 「동상이몽」, 그리고 「바람 불어 좋은 날」 세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노년기에는 통합·연속·완성·총체 혹은

16) 변정화,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171-226쪽.

변정화의 「현대 한국 ‘노년소설’에 대한 시론적 접근 -이선의 <뿌리 내리기>를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 제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9. 229-264쪽)는 이 논문의 일부를 다룬 것이기에 생략한다.

절망·종말·전복·총체의 파괴라는 상호 모순되는 삶의 대립적인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 소설의 기본서사는 통합과 완성의 서사와, 절망과 전복의 서사로 수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상 작품들이 선택하고 있는 ‘내부로부터의 묘사’ 방법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노인의 실제적·심리적 삶의 문제를 그들의 ‘육성’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으로, 억압되어 온 노인집단의 경험, 일궈어 노인들의 ‘병어리 됨’에 구사력을 부여하여 소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로써 노인문제의 대상화와 노년의 객체화, 나아가 노년에 대한 낭만적인 호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노인문제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작가의 리얼리즘적 현실 인식 태도와 창작방법론이라고 하였다.<sup>17)</sup>

변정화의 논고는 노인의 개념에서부터 노년소설의 서사구조와 특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노년소설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이다.

서정자는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최근 10년의 노년 소설에 나타난 노인의식과 서사구조」라는 논문에서, 노년 소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54편의 노년 소설을 대상으로 노인의식과 서사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년 소설의 현황과 경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였다.

그는 문학에 있어서 노년- 나이는 문학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본 바 없는 분야인데, 산업화 사회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도시화 집중화 핵가족화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들은 그 명망과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노인의 위상 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는 노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학도 노년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자는 정년퇴임 이후, 여자는 자녀를 성취시킨 후를 노

17) 변정화, 『한국노년문학연구 II』, 7-65쪽.

년으로 보고, 이러한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노년 소설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현대문학』과 『문학사상』에 발표된 단편 1,200편 중 54편의 노년 소설을 찾아내어 이를 연구 대상 작품으로 삼았다.<sup>18)</sup>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미국의 노년

18) 서정자가 제시한 노년 소설 목록을 발표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 책, 259쪽).

조갑상, 「사라진 사흘」(『현대문학』, 1985.1); 백용운, 「고가」(『현대문학』, 1985.2); 이채형, 「인동」(『현대문학』, 1985.2); 최해균, 「미련한 사람들」(『현대문학』, 1985.3); 권광욱, 「뿌리찾기」(『현대문학』, 1985.11); 최창학, 「지붕」(『문학사상』, 1986.2); 최일남, 「흐르는 북」(『문학사상』, 1986.6); 오유권, 「농부」(『현대문학』, 1986.7); 김문수, 「종말」(『현대문학』, 1986.8); 김영진, 「북부의 겨울」(『현대문학』, 1986.9); 김지원, 「다리」(『문학사상』, 1986.9); 안장환, 「밤으로의 긴 여행」(『현대문학』, 1986.9); 황영옥, 「황혼」(『현대문학』, 1986.12); 정한숙, 「출발이 다른 사람들」(『현대문학』, 1988.1); 안장환, 「목마와 달빛」(『문학사상』, 1988.3); 강무창, 「외할머니의 끈」(『문학사상』, 1988.4); 이원규, 「바다소리」(『현대문학』, 1988.7); 우선덕, 「작은 평화」(『현대문학』, 1988.9); 정찬주, 「취방울 꽃」(『문학사상』, 1988.9); 김의정, 「풍경 A」(『현대문학』, 1988.10); 서동익, 「모습」(『현대문학』, 1989.1); 손영목, 「세월의 더께」(『현대문학』, 1989.4); 박경수, 「시골맛」(『현대문학』, 1989.8); 박완서, 「가(家)」(『현대문학』, 1989.11); 이철호, 「죽음을 흠친 노인」(『현대문학』, 1989.12); 정한숙, 「비만증」(『문학사상』, 1990.2); 민병삼, 「신나는 달밤」(『문학사상』, 1990.3); 박순녀, 「끝내기」(『현대문학』, 1990.4); 우선덕, 「그대 가슴에 들꽃 가득하고」(『현대문학』, 1990.4); 정구창, 「이장타령」(『현대문학』, 1990.6); 양영호, 「흔백의 여행」(『현대문학』, 1990.8); 김성옥, 「겨울소나무」(『현대문학』, 1990.9); 유현중, 「폐촌」(『현대문학』, 1991.1); 김중태, 「기적」(『현대문학』, 1991.5); 장한길, 「불효자」(『현대문학』, 1991.7); 박경수, 「감나무집 마나」(『현대문학』, 1991.10); 안정효, 「악부전」(『현대문학』, 1991.11); 이청준, 「홍터」(『현대문학』, 1992.2); 이청해, 「풍악소리」(『문학사상』, 1992.3); 윤정선, 「사랑이 흐르는 소리」(『문학사상』, 1992.4); 이동하, 「문앞에서」(『현대문학』, 1992.4); 홍상화, 「유언」(『현대문학』, 1992.4); 안장환, 「아버지의 영토」(『현대문학』, 1992.7); 정연희(중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현대문학』, 1992.12); 송허춘, 「청량리역」(『현대문학』, 1993.3); 임현택, 「소리의 벽」(『현대문학』, 1993.3); 이형덕, 「까마귀와 사과」(『현대문학』, 1993.5); 김현숙, 「삼베 팬티」(『현대문학』, 1993.8); 안장환, 「향수」(『문학사상』, 1993. 10); 이승하, 「그리운 그 냄새」(『문학사상』, 1994.4); 이동하, 「짧은 황혼」(『현대문학』, 1994.5); 정연희(중편), 「우리가 사람 일세」(『현대문학』, 1994.5); 최예원, 「오시계」(『문학사상』, 1994.7); 윤대녕, 「새무

문학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식과 서사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룬 하강구조의 ‘노인문제 소설’과 노년에 이를 수 있는 보람과 모험 등 새로운 가능성을 다룬 상승구조의 ‘성숙 소설’로 나누어 해당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노인문제 소설’은 ‘노부모의 봉양과 끝내기 의식’, ‘노년의 억압- 노인 소외 문제’를, ‘성숙소설’은 ‘노년과 존재의 완성’, ‘노년여성의 성숙’을 다룬 소설들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우리의 노년 소설이 노인 문제 소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성숙 소설에서 보듯이 노년은 오히려 삶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이것들에서 노년 소설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분단과 이산의 시대적 아픔을 다룬 작품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은 제외하였다고 하였다.<sup>19)</sup>

또한 서정자는 「존재 탐구의 글쓰기, 그리움의 시학 - 김의정의 노년에 쓴 성장소설고」라는 논문에서, 김의정의 연작 장편소설 『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과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 두 작품을 대상으로 작가가 노년에 이르러 보여주는 자기존재 본질의 탐구와 그 이야기 방식을 살펴보고 성장 소설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규명하였다.<sup>20)</sup>

그리고 서정자는 「소설에 나타난 노년 남녀의 대비적 연대기」에서, 1930년대 이태준 소설, 1960년대 김정한 소설, 1990년대 김문수·이규희의 소설을 대상으로 노년남녀 주인공을 대비적으로 살펴 우리 사회에 노인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1930년대 이태준 소설에서는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애국지사인 듯한 다소 기인에 속하는 노인을 긍정적인 인물로, 반면에 돈 없고 꿈도 없는 노인은 구박받는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1960년대 김정한 소설은 패기와 열정을 지닌 노인들로 부

덤」(『현대문학』, 1994.8); 박명희, 「아주 작은 소원 하나」(『문학사상』, 1994.10); 이선, 「몰락」(『문학사상』, 1994.11)

19) 서정자, 앞의 책, 229-259쪽.

20) 서정자, 『한국노년문학연구 II』, 67-109쪽.

패한 정치권력과 싸우는 정의감 넘치는 긍정적 인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태준과 김정환의 소설에서는 노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거의 쓰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노년남성은 ‘기로국(棄老國)의 백성’으로 전락하였다. 김문수의 소설 「유 할머니」, 「무덤이야기」, 「탐골공원 고금」, 「서울이 좋다지만」, 연작 등에서 노년 남성들은 기로국의 백성들로 묘사되나, 노년 여성의 현실보다 심각하지 않다. 노년 남성의 경우 딸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노년 여성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들과 함께 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규희의 「그 여자의 땀박질을 끝나지 않았다」, 「황홀한 여름의 소멸」 등에 등장하는 노년 여성은 아들에게 고난과 헌신의 보상으로 효도를 받기는커녕 쓰레기로 인식되는 등 가족들과 철저히 격리되는 삶을 살고 있다.<sup>21)</sup>

서정자의 논문은 본격적으로 노년 소설을 연구하였으며, 그것들의 서사구조까지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노년 소설 연구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바바라 프레이 왁스만이 노년에서의 모험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사용한 ‘성숙소설’<sup>22)</sup>이란 용어로 상승구조의 노년소설을 설명하는 것을 그 내용의 의미 여하를 떠나서 용어 그 자체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노년이 삶을 완성하는 보람과 발전의 시기이지만, 성숙이란 유소년기나 청년기의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유남옥은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이란 논문에서,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노인 인물만을 대상으로 삼아, 박완서 소설의 노인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그는 박완서 소설

21) 서정자,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61-88쪽.

22) 서정자, 「노년, 성, 그리고 창조성」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1. 616쪽.(이 글(「노년, 성, 그리고 창조성」)은 wyate - Brown and Rosen eds. 『문학에 있어서의 노년과 성』, 앤 와이아트 브라운의 Introduction을 서정자가 번역한 것임)

에 자주 등장하는 노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작가의 어머니로서의 노인상 (『엄마의 말뚝 2·3』,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겨울나들이』), 둘째, 풍자적 노인상 (『도시의 흥년』, 『이별의 김포공항』), 셋째,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는 노인상 (일종의 노인문제 소설 : 『로열박스』, 『유실』,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건만』, 『오동의 숨은 소리여』, 『저물녘의 황홀』,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포말의 집』, 『저문날의 삽화·5』). 결론적으로 그는 박완서 소설의 노인은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을 띤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노인상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긍정적인 노인상은 연민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sup>23)</sup> 이 논문은 노년 소설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설 속의 노인의 유형과 그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노년 소설 연구에 일조가 된다고 하겠다.

유남옥의 『최정희 노년기소설 연구』라는 또 다른 논문은 최정희의 『인간사』(1964) 이후에 발표된 노년기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노년의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것을 이전의 소설과 연계시켜 검토하였다. 죽음에 관한 실존적 물음, 영원한 생명력으로서의 여성성, 모성과 운명애의 순응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유형은 이전 소설에서 꾸준히 보인 양상들이고, 첫 번째 유형은 노년기의 새로운 소설유형이라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서 작가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거부에서 묵상, 그리고 수용의 3단계적 모습을 보이는데, 『귀뚜라미』는 ‘죽음 거부하기’, 『205호 병실』은 ‘죽음의 의미 묻기’, 『탑돌이』와 『산』은 ‘죽음 수용하기’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들은 노년 소설이라 이름할 수 있는 작품으로, 특히 『산』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무덤덤하고 그윽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탑돌이』에서는 탁월하고 원숙한 노년문학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sup>24)</sup>

조희경은 『노인의 삶을 통해 본 시간의 변주 - 김동리 소설을 중심으로』

23) 유남옥,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261-286쪽.

24) 유남옥, 『한국노년문학연구 II』, 111-147쪽.

로」에서 김동리의 소설 가운데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에 주목하여, 이 노인들이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벌이는 투쟁으로서의 삶의 양태를 고찰하여 노인 세대가 되어서야 향유할 수 있는 고유한 생명력을 살펴보았다. 「화랑의 후예」, 「산제」 등 1930년대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노인을 「비상을 꿈꾸는 이인(異人)의 초상」의 모습으로, 「산화」, 「미수」, 「아들 삼형제」, 「근친기」 등 여성 노인이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거룩한 모성의 체현자’로, 「한내 마을의 전설」, 「석노인」, 「이별 있는 풍경」 등 작가가 중년 이후에 발표한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화해의 전령사’로 노년만이 이룰 수 있는 성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보인다고 하였다.<sup>25)</sup>

이 외에 조희경의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의 복원을 위하여 - 박완서론」은 「저문 날의 삽화」 이후 박완서 소설에 재현된 노년 여성의 삶의 양상을 다루었고,<sup>26)</sup> 서순희의 「소설 속에 나타난 노인 화법 - 박완서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는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5권(문학동네, 1999)에 수록된 소설에 나타나는 노인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노인화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sup>27)</sup>

그 밖에 류종렬은 「위식된 삶의 풍자- 이주홍의 소설세계」라는 평론에서, 이주홍의 「낙엽기」, 「산장의 시인」, 「바다의 시」 등에서는 노경에 접어든 주인공이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담담하고도 냉철하게 관찰하는 생의 체관이 담겨 있으며 「풍마」, 「미로의 끝」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sup>28)</sup> 또한 「이주홍과 부산지역문학」이란 논문에서, 이주홍의 후기소설 중 한 작품군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년 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을 세 유

25) 조희경, 『한국노년문학연구 II』, 149-177쪽.

26) 조희경,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89-125쪽.

27) 서순희,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127-165쪽.

28) 류종렬, 「위식된 삶의 풍자- 이주홍의 소설세계」 『부산문화』제 13호, 1987. 3. 266-274쪽 ;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2. 9-24쪽.

형으로 나누고 작품을 간략히 해설하고 있다.<sup>29)</sup>

첫째, 현대사회에서 도시화에 따른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세대의 비정함을 통해 노인의 소외된 삶이 문제시된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가치의 불신화, 비인간화, 소외 같은 반윤리적인 사회현실과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나 유교적 가치관의 허락이나 약화를 보여준다. 이런 작품으로 「땅」(1968), 「서울나들이(춘수상경기)」(1974), 「수병」(1975), 「노인도」(1978) 등이 있다.

둘째, 노년에 접어든 주인공이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담담하고도 냉철하게 관찰하는 생의 체관을 드러낸다. 이는 「노인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바다의 시」(1967), 「낙엽기」(1969), 「산장의 시인」(1970), 「부유」(1975), 「달밤」(1980)등에서 잘 드러나 있다.

셋째, 존재 탐구와 죽음의 철학적 성찰을 잘 드러낸다. 죽음의 문제는 노년의 삶과 연계된 향파 소설의 중요한 주제다. 이것은 「승자의 미소」(1966), 「낙엽기」(1969), 「차로」(1974), 「수병」(1975), 「선사촌」(1976) 등에 두루 나타나지만, 「풍마」(1972)와 「미로의 끝」(1984)에 특히 잘 드러난다.

류종렬의 논문은 부산지역의 대표적 작가인 이주홍의 후기소설 중 가장 문제적이고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 노년소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세 유형으로 나눈 기준이 다소 애매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II-3 : 다음으로 노년소설에 대한 최근의 성과로는 김윤식·김미현이 엮은 『소설, 노년을 말하다』에 수록된 김윤식과 김미현의 평론,<sup>30)</sup> 최명

29) 류종렬, 『현대소설연구』제 1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9. 537-574쪽 ; 앞의 책, 80-88쪽. 이 책에는 제목을 바꾸어 「이주홍 문학의 재인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30)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황금가지, 2004. 12). 이 작품집에는 한승원의 「태양의 집」, 홍상화의 「동백꽃」, 이순원의 「거미의 집」, 한정희의 「산수유 열매」, 이정해의 「웬 아임 식스 포티」, 하성란의 「712호 환자」,

속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sup>31)</sup>『오늘의 문예비평』의 ‘한국 문학과 말년(lateness)의 양식’ 특집 중 황국명의 평론<sup>32)</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의해 노년소설이 한국소설의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관심의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김윤식은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이란 평론에서 노인성 문학의 개념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65세 이상의 작가가 쓰는 작품을 노인성 문학 (A)형이라 하고, 65세 이하의 작가들이 노인성을 소재(주제)로 다루는 경우를 노인성 문학 (B)형이라 규정한다. 노인성 문학 (A)형에는 노인문제도 청년문제도 다루어 질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그의 의식은 노인성의 사정거리 안에서 진행된다고 하였으며, 노인성 문학 (B)형에는 자발적인 개성에 의한 선택이기에 공리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원리적으로 본격문학이라고 하였다. 염상섭의 「임종」(1949)과 황순원의 「필묵 장수」(1955)를 당시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B)형의 범주에, 박완서의 「마른 꽃」(1995), 이청준의 「꽃 지고 강물 흘러」(2003),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2000)은 (A)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종」이나 「필묵 장수」가 씌어지던 시점에서 보면 이들 작가가 나이는 각각 53세, 40세이지만 이미 대가급으로서 노인 작가 층에 들었기 때문에 두 작품도 모두 (A)형에 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종」을 「풍속사로서의 노인성문학」, 「필묵 장수」, 「마른 꽃」, 「꽃 지고 강물 흘러」를 「기질적 개성을 드러내는 노인성 문학」, 「아주 느린 시간」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의 노인성 문학」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작

---

이명량의 「엄마의 무릎」, 한수영의 「벽」 등 여덟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해설로 김윤식의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과 김미현의 「웬 아임 올드」라는 평론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31)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32) 『오늘의 문예비평』(2008년 가을호, 통권 70호, 산지니, 2008. 8). 이 특집에는 공병혜의 「한국사회와 말년의 철학적 의의」, 이경재의 「한국 현대시와 말년성의 한 양상」, 황국명의 「한국소설의 말년에 관한 사유」, 김승환의 「김윤식 유종호 김우창의 말년」 등 네 편의 평론이 실려 있다.

품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이로써 소설사에서의 노인성 문학의 계보를 작성하고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의 노인성 문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문학사적 연속성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임종」을 통해 죽음의 일반적 성격을 단지 당대의 풍속사의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와는 무관한 인간살이를 작품의 성격으로 음미하고, 이런 범주에서 노인의 경지를 다룬 「필묵 장수」 「마른 꽃」 「꽃 지고 강물 흘러」 등 세 작품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고령화 사회 이진을 특징짓는 징표로 늙어감에 대한 인식이란 특정 작가의 기질적 개성에 속한다고 하면서, 황순원의 예(藝)에 대한 감각, 박완서의 삶의 에너지로서의 정욕에 대한 강렬한 애착, 이청준의 심리적 상처로서의 노모 콤플렉스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고령화 사회 이후의 「아주 느린 시간」은 '해찰질 하기로서의 글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찰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물건을 부질없이 이것저것 해침 또는 그런 짓 하기, 그리고 일에는 정신을 두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노인의 심정을 잘 드러낸다고 하였다. 특히 죽음에 대하여 해찰질 하기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윤식은 문학일 때만 비로소 노인성 문학도 성립된다고 결론짓고 있다.<sup>33)</sup>

김윤식의 평론은 앞에서도 언급한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킨 것으로, 노인성 문학의 개념에 대해 폭 넓게 접근하여 문학사적 연속성과 현재의 성과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라는 나이에 초점을 맞추어, 65세 이상의 작가의 작품을 그 내용 여부에 관계없이 즉 노년 문제가 아니라도 노인성 문학이 될 수 있다는 점과, 65세 이하의 작가들이 노인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작가의 개성에 의한 선택이기에 본격 문학으로 취급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33) 김윤식, 김미현 엮음. 앞의 책, 249-280쪽.

진입 여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 점 등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시대에 따라 노인의 연령이 바뀔 수 있겠지만, 작가의 연령이 고려된 가운데 작품의 내용이 노인문제를 다루어야 노년소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김미현의 「웬 아임 올드 (When I'm old)」는 『소설, 노년을 말하다』에 실린 여덟 편의 작품을 분석한 것으로, 김윤식과 마찬가지로 ‘노인성 문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노인성 문학이란 작가층을 65세 이상을 기준하는 노년층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노인만이 노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법은 없고 오히려 노인 아닌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고 하였다. 즉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들이 지닌 문제 자체”가 아니라 “존재론적 양상으로서의 노인성, 문학의 소재가 아닌 약자나 타자 문제를 호출”하는 것이 노인성 문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여덟 작품은 “효라는 윤리적 잣대의 적용이나 가족 제도의 변화, 인생의 성숙이나 지혜의 측면에서 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노인과 노인 아닌 사람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서 “존재 자체만으로 심리적 굴레나 물리적 한계를 상징하는 원초적 억압으로 자리매김하는 노인들이 주로 등장한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성 문학이란 문학을 위해 노인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 노인성을 위해 문학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34)</sup> 김미현의 글은 김윤식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전개되기에, 작가의 연령이 고려되지 않아 현대의 노년소설의 범주를 너무 넓게 설정했다는 점과 노인과 노인 아닌 인물과의 갈등 관계만이 부각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명숙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는 노년소설을 연구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으로, 노년소설의 개념에서부터 유형적 특성, 갈등구조, 현실 대응 양상, 문학사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현대 노년소설을 본격적이고도

34) 김윤식·김미현 엮음, 앞의 책, 281-290쪽.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작품으로 1970년대부터 2004년 10월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발표된 노년소설 300여 편 가운데 노년소설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120편을 선별하였다.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의 사회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노년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노년의 특성과 노인의 문제를 현대사회와 노년의 사회학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 투영된 노인의식을 고찰하며 분석하였다.

노년소설의 개념은 앞의 변정화(1996)의 개념을 수용하여 “포괄적으로 노년의 삶, 즉 삶의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노년소설의 특성을 노년소설의 주요 모티프, 초점화자의 다양성과 노년 인식, 임종의 공간, 노인 언어의 특징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소설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은 노년의 삶 속에 각인된 의식이 무엇인지 유추하게 하며, 그로써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초점화자는 노인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는 관점과 가족구성원이 노인의 삶과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을 통해, 노년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노인의 삶이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진 화자는 노년인식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노인이 선호하는 임종의 공간은 ‘집’ 또는 ‘고향’ 혹은 ‘모국’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편리에 따라서 노인의 임종공간을 선택한다. 장례 역시 집에서 매장으로 치르기를 바라는 노인과 병원에서 화장으로 하기를 원하는 유가족간에 간극이 생긴다. 그러나 노인은 의중을 표출하지 않거나 표출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노인의 언어는 노년의 삶을 드러내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인의 언어에는 노년의 삶이 투영되어 있으며, 소외와 단절로 자신 없는 노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언어는 바로 노년의 삶을 보여준다.

노년소설의 갈등 구조를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누어 보고, 외

적 갈등은 역사적 체험이 삶의 현재를 지배하는 체험적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노인과 젊은이와의 갈등이 주된 서사골격을 이루는 환경적 갈등, 세대와 세대간의 정서적 차이로 생겨난 세대적 갈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자아와 상충되는 내적인 갈등인데,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정체성을 흔드는 갈등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여러 부분에서 갈등하게 되는 노년기를 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를 현실적응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것은 크게 긍정적인 적응 양상과 부정적인 적응 양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 적응 양상으로는 노년의 삶에 적극적인 태도로 적응하는 것과 자아정체성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현실 순응적 태도로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부정적 적응 양상으로는 신체적 요인에 의한 쇠약과 병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고독과 종말, 경제적 요인에 의한 실직과 궁핍,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 생겨난 소외와 단절로 드러난다.

그리고 노년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에서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표적인 노년소설을 분석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현대의 노년소설과의 문학사적 연속성을 검토하였다. 현대 노년소설과는 달리 1970년대 이전의 작품에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인문제나 노년의 현실 대응 양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5)</sup>

최명숙의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총체적 연구 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작품의 선정 과정이 다소 작위적이고, 개별 작품의 분석이 스토리 중심으로 흐른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노년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부분은 나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지 전개가 미진하다.

황국명의 「한국소설의 말년에 대한 사유」는 특집 「한국문학과 말년의 양식」 중 소설에 관한 평론이다. 그는 노년 혹은 말년은 노년세대가 이전에 어떤 노인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를 살고 있기에 가장 새로운 단계

35) 최명숙, 앞의 논문, 1-210쪽.

에 있는 존재인 동시에, 한편으로 육체의 기능적 약화나 정신심리학적 변화와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은, 즉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애의 마지막 무렵이라는 말년을 뜻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노년 경험의 역동성을 주목하여야 하고, 아울러 노년 경험의 다양성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존재론적 양상으로서의 노인성’ 뿐만 아니라 작중인물이나 작가의 연령선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노작가인 한승원과 박완서와 최일남의 작품에서 늙음이나 죽음에 대한 말년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둔해진다거나 선불리 공리적 목적성을 앞세우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승원은 시간의 선조성과 싸우는 작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있어 노소, 생사, 과거와 현재, 젊음과 늙음은 상호 유대하고 역설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에게 이것들은 혼재하고 연통하는 우주적 조화인 것이다. 한승원 소설에서 노인의 육체적 쇠락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달리, 박완서의 소설은 노추의 공포를 정면으로 직시한다. 그는 늙음과 젊음을 날카롭게 분리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용한다. 또한 관용과 화해를 통해 박완서의 소설 인물들이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신을 위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일남의 소설에서는 인물들은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에 반시대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찰과 역리의 방식, 곧 회극적인 말년의 양식으로 스스로를 견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승원과 박완서의 소설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큰 질서에 진입하거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일이기에 시간은 윈속함에 이르는 계몽의 도정으로 보이지만, 최일남의 소설에서 시간의 흐름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한 경로라고 하였다.<sup>36)</sup>

황국명의 평론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노년소설의 개념 규정에는 비껴나 있지만, 노년의 복

36) 황국명, 앞의 책, 59-79쪽.

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승원, 박완서, 최일남 세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말년 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전홍남은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를 노년소설의 관점에서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Ⅱ. 노년소설의 입론과 계보’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완서의 소설들은 대부분 1인칭 화자나 ‘나’의 고백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소하고 사사로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는 노인의 화법을 연상시키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되지만 이야기 속에 결코 맞이지 않는 것들을 지극히 선택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작가의 ‘가치적 욕구’가 스며있다. 때문에 박완서의 이야기는 수다스러우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공적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삽화>형식은 박완서의 문학적 미덕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용기로서 독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작가가 채용한 새로운 담론 형식인 것이다. 다음으로 박완서의 소설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으로써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을 환상적 풍경을 통해 재현한다.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인간다움의 근거가 와해된, 반생명적 공간이라는 통렬한 인식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년에 느끼는 생의 허망함은 <저문 날의 삽화> 연작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삶 너머의 죽음을 향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뒤따른 철학적 종교적 조명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부분들을 갈피갈피 비춤으로써 인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이해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이른바 박완서 특유의 “문밖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up>37)</sup>

37) 전홍남, 『국어국문학』 제42집, 국어문화회, 2007. 2. 33-66쪽.

또한 전홍남은 「노년소설의 초기적 양상과 그 가능성 모색 - 이태준의 노년소설을 중심으로」이란 논문에서, 이태준의 「복덕방」, 「불우선생」, 「영월 영감」 등을 초기적 노년소설로 보고, 이들에 나타난 노인상과 현실 극복 의지를 고찰하여 노년소설의 초기적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복덕방」은 세 노인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서사의 핵심에 놓인 경우로 지금의 시점에서 보아도 노년소설의 범주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기도 하다. 「불우선생」과 「영월 영감」 역시 나름의 개별성을 가지면서 공통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과 일제침략이라는 질곡의 상황이 맞물린 파행적인 현실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한 노인들이 그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 속에서 노인들은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기(義氣)를 보여줌으로써 나름의 대응력을 보이지만,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사회에서 이탈되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보여준 의기로운 삶의 자세를 식민지 상황인 현실에서 유용한 가치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불우선생」에서는 징후적으로 제시되지만 「영월 영감」에 이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태준 문학에서 노인들의 위상은 ‘생의 희망을 잃은’ 존재들로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불우선생」과 「영월 영감」의 노인들은 나름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파행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기로운 이태준 문학에 나타나는 노인의 위상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sup>38)</sup>

전홍남의 논문은 노년소설의 관점에서 박완서와 이태준의 소설의 담

38) 전홍남,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3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8. 161-183쪽.

론 특성과 노인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노년 소설에 대한 계보와 성격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노년소설을 다룬 평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평문과 논문들은 두루 살펴 보았기에, 나머지는 제외하기로 한다.

### Ⅲ.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소설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김병익, 천이두 등의 평론가들에 의해 월평과 서평 등에서 한국소설에 있어 문제적 소설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재선에 의해 도시소설의 한 유형으로 문학사에 기술되고, 김윤식에 의해 노인성 문학이란 명칭으로 소설사의 중요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이재선의 논고는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있어서 노년의 도시생활과 도시화와 연계된 삶을 다룬 노년학적 소설들을 문학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들의 여러 양상들을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김윤식의 평론은 노인성 문학이 근대문학의 연륜과 작가의 연륜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점과 구체적 작품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노년소설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소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나온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펴낸 『한국 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한국노년문학연구 II』,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한국노년문학연구 IV』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책에 수록된 변정화, 서정자, 유남옥, 조희경, 서순희 등의 논문이 노년 소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변정화와 서정자의 논문은 노년소설의 개념과 서사 구조, 유형적 특성 등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김윤식·김미현이 엮은 『소설, 노년을 말하다』에 수록된 김윤식과 김미현의 평론, 최명숙의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오늘의 문예비평』의 ‘한국 문학과 말년(lateness)의 양식’ 특집 중 황국명의 평론, 그리고 전홍남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김윤식의 평론은 노인성 문학의 개념과 소설사적 계보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최명숙의 논문은 노년소설을 다룬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개념에서부터 유형적 특성, 갈등구조, 현실대응양상, 문학사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노년소설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황국명의 평론과 전홍남의 논문은 각각 한승원, 박완서, 최일남의 최근 작품을, 그리고 박완서와 이태준의 작품을 노년소설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노년소설로서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에 의해 노년소설이 한국소설의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 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노년소설의 개념과 특성, 서사구조, 유형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대체로 공통의 내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명숙과 서정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알려진 몇몇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고, 소설 유형으로서의 명칭과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소설유형론은 프란츠 슈탄젤이 말한 바 ‘유형론적 분류는 한 편의 소설의 의미구조를 X선 촬영하는 것과 같다. 이런 대강의 윤곽은 독자와 연구자에게 작품 개성의 골격의 흔적과 작품의 정신적 외양을 안내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소설유형론은 작품해석에 도움을 준다.’ 고 그 의의를 밝혀 놓은 것처럼,<sup>39)</sup> 소설 유형의 명칭도 작품의 본질적 성격과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up>40)</sup>

39)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 154-155쪽 재인용.

40) 슈탄젤의 유형론은 물론 작품의 다양한 양상을 조감할 수 있는 비역사적인 질서나 원리로 이해된다. 그렇게 본다면 노년소설은 이러한 소설 유형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노년소설은 시대적으로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의

노년소설의 명칭도 이런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노년소설, 노년의 문학, 노대가의 문학, 노인문학, 노년학적 소설, 노인성 문학, 노년기 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노년소설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노대가의 문학은 작가생활을 오래한 원로급의 문학을 말하는 것이기에 제외하더라도, 노년학적 소설이란 노년학과 연계된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문학은 노인이라는 어휘가 주는 다소 부정적 의미와 등장인물만을 중심으로 다룬 듯하고, 그리고 노인성 문학은 노인성만을 중시하는 문학을 의미하는 듯하며, ‘문학’을 ‘소설’로 바꾸면 노인성 소설이 되어 소설 유형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노년의 문학과 노년기 소설은 창작 주체인 작가의 나이만을 고려하는 듯 하기에 소설 유형의 명칭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년소설이 작품의 본질적 성격과 구조를 드러내는 명칭으로 비교적 무난하다고 여겨진다.

노년소설의 범주에 대해서는, 노년의 작가가 생산한 작품만을 노년소설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노년소설의 성격이 잘 드러나면 작가의 연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를 따른다면 노년소설의 범주가 너무 넓고 또다른 소재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노년 작가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노년소설의 성격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의 연령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층을 노년의 작가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노년의 연령선은 김윤식의 지적처럼 물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일종의 제재를 기준으로 한 소설 유형이다. 그러므로 제재를 기준으로 한 소설 유형론은 초시공적 성격을 띠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재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남현, 위의 책, 162쪽) 그러나 여기서 명칭의 문제는 그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고 명칭의 내포와 외연의 의미가 이와 같은 유형의 소설적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년소설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년소설은 시대적으로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의 현대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소설 유형으로, 노년의 작가가 생산한 소설이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야기의 중심 영역이 주로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고, 서술의 측면에서 노인을 서술자이나 초점화자로 설정하여 서사화된 소설을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가족해체와 이에 따른 세대의 비정함을 통해 노인의 소외된 삶을 다루는 부정적 측면의 소위 ‘노인문제’ 소설과, 노년의 원숙성과 지혜를 보여주거나 존재의 탐구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다루는 긍정적 측면의 소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절망과 전복의 하강구조와, 통합과 완성의 상승구조라는 서사구조와 짝을 이루고 있다.<sup>41)</sup> 그러나 실제 작품을 분석하면 양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작품들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41) 노년소설이 대체로 세태소설에 속하는 것이기에 작중 사건이 상승과 하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과정에서나 결말에 이르러 작품이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띠느냐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서사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1945-2000), 민음사, 2002. 8.
-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12.
- 김윤식·정호웅, 『개정증보판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9.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2.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인식』, 백남문화사, 1996. 10.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4.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2. 2.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V』, 이회, 2004. 3.
- 보건복지부 통계청(2001.12) 「장래인구추계」
- 서병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4,
-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가을호, 통권 70호, 산지니, 2008. 8.
-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3,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허출판사, 1991.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1945-1990), 민음사, 1991. 3.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4.
- 김경수, 「쓸쓸한 그리고 인간적인 - 노년소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넥스트』 34호, 2006. 8.
- 김미현, 「웬 아임 올드 (When I'm old)」,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12.
- 김병익, 「노년 소설 침묵 끝의 소설 - 노년과 중년기 작가의 변모와 기대」, 『한국문학』, 한국문학사, 1974. 4.
- 김승옥, 「빛바랜 삶들」,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3년 6월호.
- 김윤식, 「노인성의 문학적 처리 방식 - 박완서·윤정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4.

- 김윤식, 「2001년도 중·단편 읽기 - 황순원문학상 후보작의 경우」, 『2001 (제1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문예중앙, 2001. 9.
-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12.
- 류종렬, 「위식된 삶의 풍자 - 이주홍의 소설세계」, 『부산문화』 제 13호, 1987. 3.
- 류종렬, 「이주홍과 부산지역문학」, 『현대소설연구』 제 1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9.
-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 이선의 <이사>와 <뿌리 내리기>를 대상으로」,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0.
- 변정화, 「현대 한국 ‘노년소설’에 대한 시론적 접근 - 이선의 <뿌리 내리기>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9.
- 변정화, 「죽은 노인의 사회, 그 징후들」,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4.
- 서순희, 「소설 속에 나타난 노인 화법 - 박완서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2. 2.
- 서정자,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0.
- 서정자, 「존재 탐구의 글쓰기, 그리움의 시학 - 김의정의 노년에 쓴 성장소설고」,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4.
- 서정자, 「노년, 성, 그리고 창조성」,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1.
- 서정자, 「소설에 나타난 노년 남녀의 대비적 연대기」,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2. 2.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한국문

- 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0.
- 유남옥, 「최정희 노년기소설 연구」,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4.
-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과 문학적 함의 - 저문 날의 삽화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 42집, 국어문학회, 2007. 2.
- 전홍남, 「노년소설의 초기적 양상과 그 가능성 모색 - 이태준의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3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8. 8.
- 조희경, 「노인의 삶을 통해 본 시간의 변주 - 김동리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4.
- 조희경, 「「사소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일」의 복원을 위하여 - 박완서론」,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2. 2.
- 천이두, 「원숙과 패기」 『문학과 지성』, 24호, 1976년 여름호, 제7권 제2호, 1976. 5.
-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 황국명, 「한국소설의 말년에 대한 사유」, 『오늘의 문예비평』, 2008년 가을호, 통권 70호, 산지니, 2008. 8.

<Abstracts>

## The Research History of Modern Korea Old Age Novel

Rhyu, Chong-Ryeol

Kim Byungik, Chun Idoe and other commentators have touched upon the declining year of Korean novels through their several journals and book reviews since 1970. They were often referred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s a type of urban novels in the 1990s. On top of that, they were technically categorized as a type of novel like declining years. When it comes to the result of somewhat fundamental research of them, one can make mention upon <The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 <Study of Korean Old Aged II> <Study of Korean Old Aged III> and <Study of Korean Old Aged IV> published by “Gathering Thinking of Literature” after the late 1990s. In these nooks, Byun Jeonghwa, Seo Jungja, You Namok, Cho Hoekyung, Seo Soonhee and others deal with the novels of declining years.

Current research includes <Novel telling the Old Aged> compiled by Kim Yoonsik and Kim Mihyun and their commentators, <Study of Modern Novel of Korean Old Aged> by Choi Myungsook, Hwang KookMyung’s commentators in <Modern Literature Critique>, and papers by Chun Heungnam. Most of all, these could set up a fundamental foundation for Korean novels of declining years. Novels of declining years were periodically able to set a foot in the literary

world by dealing with the older aged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late 1970s. Some of depictors treat with negative aspects of the declining years such as disintegration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increasing side effect by the old aged. Other delineators deal with positive circumstances by dint of philosophical introspection of human existence and isolation through the bitterness of their life.

Key Words : Modern Korea Old Age Novel, History of research, Literature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Issues of Old Aged, Study of Senescence